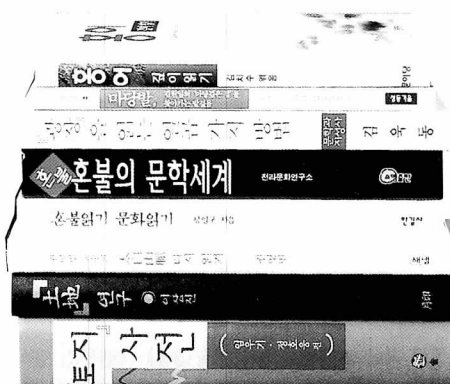


# 고전 반열에 오른 현대 문학작품의 총체적 면모 밝힌다

한 작품 집중 조명하는 책들 꾸준히 나와



한 책에 대한 박물관적 지식을 집대성한 테마 북 형식의 책들이 출판의 한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토지》《태백산맥》《혼불》 등 뛰어난 국내 문학작품을 분석한 글을 모은 것이 대부분인데, 한 작품에 대해 입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독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책 한 권이 여러 방계 책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들이 분석하는 책은 대개 장편소설로, 학계나 독자들에게 작품성이나 문학적 가치 등에서 일급 수준임을 인정받은 작품들이다.

## 이론적·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이런 경향의 책은 《《토지》비평집(전4권)》을 효시로 꼽을 수 있다. 1994년 작가 박경리가 《토지》를 완간한 때에 맞춰 《비평집》 제1권으로 《토지》 완간 전의 평론을 모은 《恨(한)과 삶》(정현기 외)이 출간됐다. 그 뒤로 완간 1주년 기념 비평집 《한·생명·대자대비》(황현산 외), 2주년 기념 비평집 《《토지》와 박경리 문학》(한국문학연구회), 《《토지》를 읽는다》(최유찬, 이상술)가 차례로 선보였다.

1996년에는 권영민 교수가 《태백산맥 다시 읽기》(해냄)를 펴내 《태백산맥》에 대한 문학적 평가와 남다른 해석을 보여줬다.

이 책들의 면면을 보면, 《恨과 삶》부터 지난 해에 나온 《혼불의 문학세계》(전라문화연구소, 소명출판)까지 《토지사전》(임우기 외, 숲)을 제외하곤 모두 논문이거나 논문형식을 띤다. 장일구의 《혼불읽기 문화읽기》(한길

사), 김옥동 교수의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문학과지성사), 김치수 외의 《《홍어》 깊이 읽기》(문이당) 등이 그렇다. 이들은 소설 만큼이나 남다른 개성으로 작품을 파헤친다. 그러나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어려운 글이 많다.

이 책들에 대해 문학평론가 김미현은 “일반적인 평론이라기보다 이론·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서다. 따라서 깊이는 있지만 시의성이 떨어진다. 학술적 가치는 있지만, 당대의 관심사를 포함하지 못하고 읽히는 문체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예지의 일반 평론과 달리 한 작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 생존작가의 작품을 저널리즘이 아닌 아카데미즘에서 흡수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예각화한 시각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단점이다”고 말한다.

이 책들은 혼자 연구했는지,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함께 실었는지로 다시 한번 나눠 읽을 수 있다. 개인 저작물은 작품을 대하는 빼어난 일관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반면, 다채로운 읽기에는 취약하다. 《《토지》연구》는 등장인물의 존재방식과 지은이의 인물 묘사 방식에 천착해 작품 전체를 조망한다. 《혼불읽기 문화읽기》는 작품의 배경 기술 등 외형에 집중한다. 그런데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은 개인 저작물임에도 여느 연구서와 사뭇 다르다. 말 그대로 ‘비평서를 겸한 이론서, 이론서를 겸한 비평서’다. 여러 가지 비평방법을 통해 《광장》을 읽고, 《광장》을 통해 비평방법을 소개한다.

《《토지》비평집》이 그렇듯 여러 연구자들의 비평을 모은 책은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홍어》 깊이

이 읽기》에서는 홍어를 가출한 아버지의 상정으로 보는 테마 비평, 《《홍어》에는 홍어가 없다는 주제 비평은 물론, 칩거와 날기라는 정신분석학적 해석까지 접할 수 있다. 즉 여러 연구자들이 다각도로 접근하는 데 힘입어 “예각화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 그러나 이들의 다양성은 산만함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 전문가의 다양한 독법 제시해

한 작품에 몰입하는 많은 책들 가운데 최근에 출간된 《마당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찾아가는 발걸음》(박진숙 외, 청동거울)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드라마작가, 시인 등 평론가가 아닌 문인들도 지은이로 참여했다. 작품배경인 대구를 직접 찾고, 동화·에세이 등 비평을 벗어난 방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추억한다. 청동거울 조태림 편집장은 이 독특한 시도에 대해 “원작의 가치를 인식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 문화시대에 맞는 문화산업개발을 위해 문학을 활용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일환이다”고 설명한다.

이 책들의 미덕은 한 작품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거나 저렇게 읽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데 있다. 각기 자신의 읽기를 보여주며 일반 독자에게는 해석과 비평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자에게는 토론거리를 제공한다. 공박의 수순을 밟아 결국 설득력 있는 해석을 가려낼 뿐이다.

그러나 생소하고 어려운 글쓰기로 일반 독자들이 소외되고 있다. “문체와 글쓰기에 대해 연구자들이 더욱 고민해야 한다”는 이상진 교수의 지적대로 일반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들을 기대한다. —차정신기자